

사립학교 비위 학급감축 등 엄중 조치

김승환 교육감 “사학 비리 적발시 적극적으로 권한 행사해 나갈 방침”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사립학교의 비위에 대해서는 학급 감축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청이 사립학교의 비위를 적발해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해도 학교 법인에서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들 학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학급감축 등 엄중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운영비나 인건비 지원 중단 등의 제재 효용성에 대해서는 “법적 다듬의 소지가 있고 무엇보다도 소수의 잘못으로 인해 다수의 학생과 교원이 피해를 입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교육감은 “학급감축은 법률상 권한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사학 비리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조기 대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김 교육감은 새 정부에서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적 중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언제라도 대선 후보들에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시급한 현안들



‘졸업,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서경대학교 졸업생들이 14일 오전 서울 미포구 서경대학교에서 열린 2016 학년도 학위 수여식을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을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대안제도 등 개선해야 할 교육현안이 많다. 문제점만 지적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한다는 대안까지 제시해야 한다.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요구하든지 여의치

않으면 전북교육청 단독으로도 후보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해은 기자

전주시보건소,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확대

‘찾아가는 자기혈관 숫자알기’ 이동검진 30~50대 건강문제까지 집중 관리

심폐소생술 교육실 신설 운영

전주시가 올해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대상을 기존 60대 이상에서 30대 이상까지 확대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실을 신설 운영하는 등 보다 많은 시민들의 건강을 돌보기로 했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건강한 심뇌혈관을 지키고, 위급 상황에서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도시 전주를 만들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특히 보건소는 국내 전체 사망원인의 1/4을 차지하며 의료비 부담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 자가 관리율을 높이기 위해 시민들 스스로 위급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예방적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로당과 복지관 등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찾아가는 자기혈관 숫자알기’ 이동검진을 올해부터는 사업장과 학교, 아파트 등으로 확대해 직장생활 등 업무로 인한 시간제한으로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30~50대의 건강문제까지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자기혈관 숫자알기’ 이동검진은 전주시 관내 사업장 등 기관에서 이동검진을 신청하면, 전문 인력이 현장에 직접 방문해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보건소는 시민들이 뇌졸중과 심근경색증 등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갑작스런 심정지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합병증과 사망률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실’을 올해부터 신설 운영한다.

심폐소생술 교육실에서는 연중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이론 교육과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 등의 심폐소생술 교육이 무료로 진행된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월 2회 20명씩 그룹을 이루어 실시될 예정으로, 전주시민이라면 누구나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내용 및 일정을 확인한 후 참여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보건소는 지난해 시민들의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경로당 및 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총 280회에 걸쳐 ‘찾아가는 자기혈관 숫자알기’ 이동검진을 운영했다.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보건소에서는 올해 ‘찾아가는 현장’ 서비스를 확대하고 시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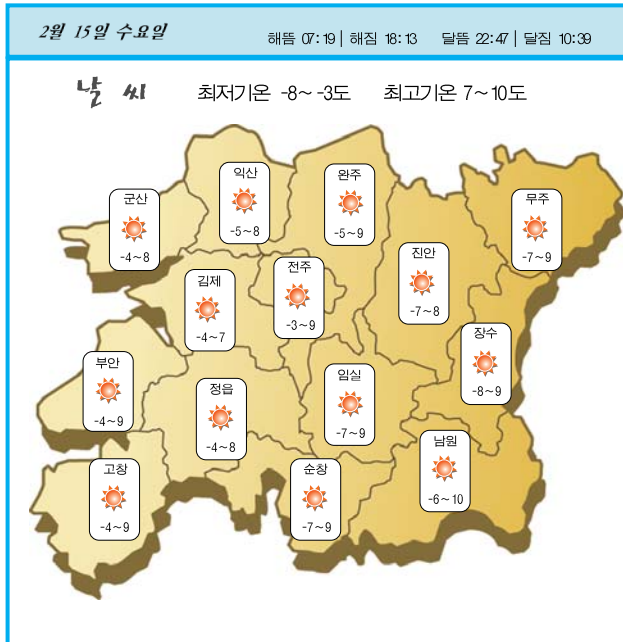
학원 등 지도점검 사전예고제 확대 시행

전주교육지원청은 관내 학원, 교습소, 개인과의 교습자에 대해 ‘2017년도 학원 등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에 이어 올해 한해도 사전예고제를 통한 지속적인 상시 일반지도점검 활동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지도점검 사전예고제의 첫 시행으로 학원의 운영과 관련된 변경 등록 등 민원신청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민원 처리건수가 40.2%나 증가하는 등 업무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행 2년차를 맞이하여 최근 개정된 학원관련 법규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홍보를 병행하면서 육의가격표시제 시행, 교습비 및 기타경비 초과징수 등 일반지도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 손 교육장은 “정보부족 등으로 불법·편법 운영을 하고 있는 학원장 등에게 자율적 시정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지도점검 사전예고제 활동이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관내 1기관 1회 이상 점검을 목표로 확대, 시행한다면 불법운영이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해은 기자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일반고 실태 분석 12개 과제 연구 작업 착수

전북교육정책연구소가 올해 전북 일반고 실태 분석 등 12개 과제에 대한 연구 작업에 착수한다. 14일 전북교육정책연구소(소장 전용석)는 ‘전북일반고 실태분석을 통한 중장기 육성정책 연구’를 비롯한 6개 정책과제와 학교와 연계된 마을교육공동체 구축방안’ 등 6개 주요과제를 포함한 총 12개 과제를 연구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정책연구소가 선정한 올해 정책과제 연구 목록을 보면 △전북 교육청 정책사업 평가 △유사 중복 정책사업 실태 △전북 일반고 실태 △전북 특성학교 발전방안 △혁신학교 질적 성과 분석 등 6가지.

또 주요 과제 연구 목록은 △학교 민주주의 수준 측정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전북교육특구 발전 스펙트럼 △다문화학생 지원 △학교예산 자율성 확보 △유치원 민

주적 운영방안 등이다. ‘일반고 실태분석’ 연구는 일반고 학생들의 필요와 적성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또 ‘전북교육청 학교중심 정책사업 유사·중복 문제의 실태와 해결방안 수립’ 연구는 전북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취약계층 대상 관련 사업 중 사업 대상 및 프로그램의 중부 문제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 중복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한 단위 학교 업무 가중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전북교육정책연구소는 16일 전주생명과학고에서 제5회 연구보고회를 갖고 지난해 발표한 12개 교육정책 연구과제 결과를 공유하고 현장 적용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정해은 기자

도교육청, 예술 교육거점·드림학교 추가 공모

전북도교육청이 예술교육거점학교와 예술드림학교를 추가 공개 모집한다. 예술교육거점학교는 지역내 학교와 공동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예술교육과정을 연계 운영하는 등 학교 예술교육센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간 운영하게 된다. 이와함께 소외 지역 학생들에 대한 동아리, 예술체험활동 등 다양한 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예술 드림학교 1곳도 추가 공모한다.

도교육청은 기존 56개 학교예술교육지원사업 운영 학교 중 1곳을 선정해 3천만원을 지원, 3월부터 1년

예술교육센터 선정된 학교는 4천만원을 지원받아 1년 간 인근 초·중고와 연계한 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역예술교육기관과 연계한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에 나서게 된다. /정해은 기자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두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이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학교
행복한 교육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리밭’ 역할을 재점검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